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가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September 2, 2022 Vol. 828

OC 교계, 차세대 목회자·지역 교회 섬김 빛났다

오렌지카운티 한인교계 지도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준비하며 차세대 한인 목회 지도자 발굴과 영적 리더십 개발에 마음을 모았다.

OC 교계는 30~50대 차세대 한인 목회자 21명을 선정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OC 영적대각성 다니엘 새벽기도회를 주최한 데 이어 25일에는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에 목회적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영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차세대 목회 지도자를 위한 영성 세미나는 OC지역의 한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한인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장로협의회, OC한인여성목사회, 세계어머니기도회 등이 협력해 OC 지역 차세대 목회자들을 격려했다.

영성 세미나 강사로는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나서 각자의 목회 경험을 나누고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 소개했다.

강사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목회 위기



차세대 목회자를 위한 영성세미나에서 힘찬 화이팅을 외치는 참석자들 ©기독일보

를 성경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한기홍 목사는 “영적 리더는 위기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기는 리더를 성장시키고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며 “오늘날 우리가 봉착한 위기의 해법은 다시 하나님과 성경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유철 목사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우리의 목회 장소와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 사역의 본질인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고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자”고 권면했다.

김한요 목사는 “코로나로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진 것이 강단이다. 코로나를 지나며 배운 것 중 가장 중요

한 교훈은 목회자가 강단을 지키고 전파되는 설교 메시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하나님께서 강단의 회복을 원하시고 교회의 본질 원하시기에 목회자는 나의 삶을 헌신해 열정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전파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심상은 목사는 “팬데믹 이후 OC 지역의 한인 목회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용기가 필요한 시기에 선·후배 목회자들과 교류의 장을 형성할 수 있었다”며 3050 차세대 목회자를 찾아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우고, 섬김과 협력을 통해 OC 지역의 영적 부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였다”고 호평했다.

심 목사는 이어 “다니엘 새벽기도회는 매일 새벽마다 선포되는 말씀은 사명을 붙들고 선교에 도전을 주기에 충분했고, 원근 각처에서 모인 200여 명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으로 하늘이 진동하는 시간이었다”며 “OC 지역의 각 교회마다 코로나를 넘어서 뜨겁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美 74%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NBC뉴스, 유권자 1천 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미국인의 약 4분의 3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NBC 뉴스가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1천 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4%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반면, 58%는 “미국의 전성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미국인의 21%는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35%는 “미국의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34%가 “향후 5년 동안 국가가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36%는 “같은 기간 동안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21%는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거의 절반(48%)이 “다소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다고, 40%는 “호의적”이라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 물가상승률 감소법에 서명한 후 나왔다. 이 법안은 기후 변화, 낮은 의료 비용 및 인플레이션에 관한 것으로, 미국인

의 31%는 법안에 반대, 42%는 찬성했다.

또 응답자의 36%는 “새로운 법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35%는 “삶이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26%는 “삶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의 승리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은 꼬집었다.

민주당원들은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 서명과 휘발유 가격의 소폭 하락이 동력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또 대법

원이 ‘로 대 웨이드’(낙태 합법화 판례)를 뒤집고, FBI가 도널드 트럼프의 마라라고 부동산을 급습한 사건 등으로 공화당이 피해를 입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일부 미국인들이 도시에서 기록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전례 없는 범죄 사건들에 질려 있기 때문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200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 남부 국경을 넘었고, 일부 미국인들의 반발도 거셀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윈섬 시어스(Winsome Sears) 버지니아주지사는 “대통령에게 ‘국경으로 내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봐 달라’고 조언할 것이다. 그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 Day 24hours (213)400-6363

미국 ↔ 한국 ₩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배크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213.820.3704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배크립시

배크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포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국제버스 USA 이사장
(현)남加州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현)제미발행기협회 고문 변호사
(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원더걸스’ 전 리더 선예, 남가주 밀알의밤 게스트로 선정

걸그룹 ‘원더걸스’의 전 리더이자 현재 ‘마마걸’ 멤버로 활동 중인 ‘선예’ 사모(본명: 민선예)가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이 9월 30(금)부터 10월2(주일)까지 개최하는 밀알의 밤 게스트로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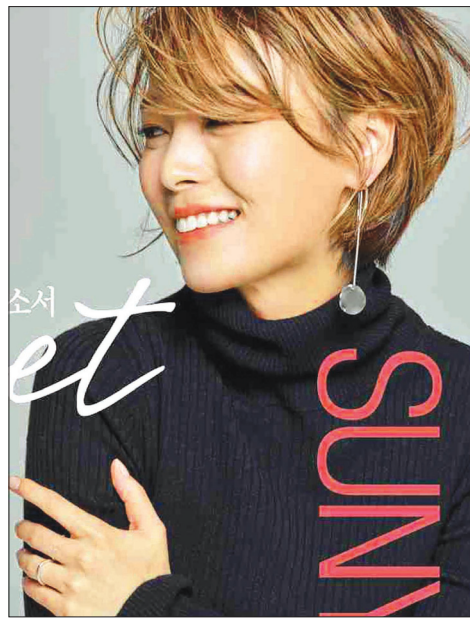
9월 30일(금) 오후 7시30분 ANC온누리교회(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10월 1일(토) 오후 7시 남가주새누리교회(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10월 2일(주일) 오후 7시 남가주사랑의교회(1111 N. Brookhurst Street., Anaheim, CA 92801)에서 차례로 진행되는 밀알의 밤에서 선예 사모는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원더걸스의 메인 보컬로 데뷔한 선예는 뛰어난 재능과 가창력으로 ‘Tell

me’ ‘So hot’ ‘Nobody’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미국 빌보드 차트 76위에 오를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한 그녀는 아이티 선교를 다녀오는 등 선교, 봉사활동에도 열심이었으며, 2013년 캐나다 교포 출신 ‘제임스 박’ 선교사와 결혼 후에는 세 아이의 엄마로 가정에 충실하며 다양한 간증, 찬양 활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있다.

“화려한 걸그룹으로 인기정상을 달렸을 때보다 아이티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찬양을 부를 때가 훨씬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선예 사모는 이번 집회에서 자신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을 간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희 목사는 “지난 2년 동안 펜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밀알의밤을 개최했지만, 올해는 펜데믹 이전처럼 현장 공연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선예 사모



걸그룹 ‘원더걸스’의 전 리더 ‘선예’ 사모 ©밀알 포스터

의 아름답고 진솔한 삶의 나눔을 통해 파스한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밀알선교단은 2001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에게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시작해 2022년까지 총 274만8천200달러를 지급했다.

올해도 미주장애인장학생 4명과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장학생 5명, J&J 장학생 2명, James Worldwide 장학생 10명, Moon Foundation 장학생 10명, 장애인선교사역자 육성장학금 10명, 제3국 및 중남미 장학생 20명,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20명 등 총 84명에게 \$10만4천200달러의 장학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밀알의밤 티켓 후원은 20달러다.

문의 : 남가주밀알선교단 562-229-0001 김동욱 기자

크렌셔장로교회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교회 될 것”

창립 감사예배 및 임직식 가져

크렌셔장로교회(담임 한현종 목사)가 지난 28일 창립감사예배와 임직식을 가졌다. 이날 예배에는 2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크렌셔 장로교회의 믿음의 향해를 축복했다.

한현종 목사는 “지난 1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다”면서 “말씀의 뜻을 올리고 기도의 노를 저으며 믿음의 향해를 시작하려 한다. 거친 파도와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예배는 한현종 목사의 인도로 심재인 장로가 대표기도하고 크렌셔장로교회의 성가대 찬양 후에 역대하 3:17절을 본문으로 “성전의 두 가지 지반과 기둥”이란 제목으로 한현종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한 목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지반의 되는 2가지의 의미와 기둥의 2가지 의미를 묵상하자”면서 “크렌셔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터전이 되고 기



크렌셔장로교회 창립 감사예배 및 임직식 ©기독교일보

반이 되어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교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거듭남의 가득한 교회가 되자”고 말했다.

이어진 임직식에서 한현종 목사의 서약과 선포를 통해 김 제임스, 서진호씨가 시무장로로 이경미 조원회씨가 각각 권사로 임직됐다. 황호진 집사가 축가를 부른 후에 박준철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서진호 장로는 “지난 1년간 크렌셔장로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수고, 정성으로 이렇게 귀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하

다”며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심정으로 온 성도들이 예레미야 처럼 벽돌 하나하나를 쌓았다. 더욱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직식에는 박대원, 주리돈 장로의 은퇴 장로 찬양식과 이영두 장로의 명예장로 추대식도 같이 진행됐다. 이인규 기자

■크렌셔 장로교회
예배안내: 주일 오전 10:30분
주소: 1060 Crenshaw Blvd, LA, CA 90019
문의 213-407-1600

기쁜우리교회 ‘이웃과 함께 하는 한가을밤의 음악회’ 연다

오는 10월 1일(토) 오후 7시, LA 챔버 콰이어 등 출연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10월 1일 (토)오후 7시, ‘이웃과 함께 하는 한가을밤의 음악회’를 개최한다. 소프라노 이영주, 알토 심현정, 테너 백동휘, 베이스 이정욱, 피아노 김유경과 LA 챔버 콰이어가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온 가족이 힘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쁜우리교회는 “그동안 펜데믹으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아름다운 선율을 나누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음악회 참석은 무료이며 자세한 문의는 기쁜우리교회 818-662-0400으로 할 수 있다.

이인규 기자

부에나팍 시, 다민족 축제로 평화 추구

오는 9월 24일(토) 오전 11시, 부에나팍 시청 앞 광장

남가주 부에나팍 시에서 주최하는 첫 다민족 축제가 오는 9월 24일(토) 오전 11시

부터 6시까지 부에나팍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다.

다민족 축제는 펜데믹으로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휴식과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고, 타민족의 문화를 존중하며 평화와 공존을 추구



이정임 무용단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축제에는 한국을 비롯해 여러 민족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각종 문화와 놀이 체험 및 각 나라의 음식도 맛볼 수 있다.

한편 이날 피날레 공연으로는 이정임 무용단이 초청 돼 부채춤, 검기무 등 한국무용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법전문리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상담/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다민족 연합기도회 “미국의 영적 부흥,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는 10월 2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

미국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한 2022 다민족연합기도회(대표 대회장 한기홍 목사)가 오는 10월 2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에서 열린다.

올해는 다민족연합기도회의 근본 취지에 맞게 한인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히스패닉, 백인, 흑인, 인도, 베트남, 일본 등 타민족 교회 성도들이 대거 참석해 미국이 당면한 영적 위기와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된다.

다민족연합기도회 준비위원들은 동성애와 낙태, 사회주의 확산 등 미국이 당면한 영적 위기를 우려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회개하고 기도하며, 부흥을 간구하길 원한다”며 남가주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준비위원들은 또 남가주 지역 여러 타인종 대형 교회와 접촉해 다민족 기도회의 취



2022 다민족 연합기도회 기자회견 기념촬영 ©기독일보

지를 소개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별히 각 민족에 기도 인도 시간을 배정해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도회는 △미국의 교만, 역사 속의 죄, 생명 경시 사상, 인종 갈등 회개 △교회, 가정, 교육에서 청교도 신앙 회복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미국의 지도자들의 하나님 경외 △영적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 △전세계 평화와 박해국 사람들

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한기홍 목사는 “여러 가지 위기에 당면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이고, 전 세계 평화와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며 “다민족들이 함께 연합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미국을 깨우고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고 독려했다.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는 “미국은 청교

도들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운 나라임에도 공공교육과 가정이 반 성경적 교육으로 붕괴되고 있으며, 대학은 이미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다”면서 “대부흥이 오기 전에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미국의 영적 부흥이 남가주에서부터 일어나도록 하자”고 전했다.

공동대회장 신승훈 목사 “미국은 낙태와 동성애 등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속주의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미국이 다시 한 번 전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제사장 국가로 쓰임 받도록 다민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11월 11일 파사데나 로즈볼 기도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된 다민족기도회는 2014년부터 남가주 한인교회가 중심이 되어 기도회를 이끌어왔다. 올해 다민족연합기도회는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청교도신앙회복운동, OC 교협, JAMA, 미주성시화운동본부, KACC, 은혜한인교회가 공동 주최한다.

김동욱 기자

미주장신대 전세계 40여 국, 300여 재학생들과 2022년 가을학기 출발



미주장신대 2022년 가을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환영사를 전하는 이상명 총장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가 지난 27일과 29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개강 감사 예배를 갖고 2022년 가을학기를 힘차게 출발했다.

전 세계 40여 국가에서 등록한 300여명의 재학생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활발히 학업과 사역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학기에는 신학, 사회복지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등 5개의 학부 과정과 7개의 석사 과정(교역학, 교역학 전문원목과정, 교역학 전문코칭과정, 상담심리학, 선교학, 결혼가족치료학, 전문코칭석사), 2개의 박사 과정(선교학박사, 선교학철학박사)

이 개설됐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환영사를 전한 이상명 총장은 “하나님을 알고 지식과 영성을 배우는 과정은 특별한 은혜요 특권”이라며 “배움의 여정에 초청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학업을 향한 결단과 결기를 더욱 공고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강 감사 예배에서 설교한 정중한 목사(남가주 믿음의 교회 담임, 미주장신대 이사장)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학업과 사역에 임하자”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간으로 삼자”고 격려했다.

김동욱 기자



왼쪽부터 박헌성 목사, 하요한 목사, 서보천 목사, 박재웅 목사, 나정기 목사, 이성화 목사, 강인중 목사, 이병구 선교사, 김명자 선교사, 강은덕 목사

세계예수교장로회 세계선교회, 본국 예장 합동 GMS와 MOU 체결

협정서 교환하고
상호협력 다짐

세계예수교장로회(WPC) 세계선교회(WMS, 이사장 나정기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회(GMS, 이사장 이성화 목사)가 상호 선교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지난 19일, LA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회의실에서 MOU를 체결하고 세계선교를 위한 동반자적 선교협력을 다짐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선교 사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공유하고 사역이 원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

할 방침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GMS측 이사장 이성화 목사, 사무총장 강인중 목사, 이병구 선교사(현지 훈련원장 겸 지부장), 김명자 선교사(미주지역 대표) 등과 WMS측 증경이사장 박헌성 목사, 이사장 나정기 목사, 부이사장 박재웅 목사, 서기 서보천 목사, 회계 강은덕 목사, WPC총회 총무 하요한 목사 등이 참석했다.

나정기 목사는 “MOU 체결을 위해 본국에서 직접 방미하신 이사장 이성화 목사 일행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WMS의 선교 사역이 더욱 확장되어갈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p>교수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존 코 교수 Dr. John Coe</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p> </div> </div>	<p>초청 강사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줄리어스 김 Julius Kim</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김한요 목사 Bryan Kim</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권준 목사 James Kwon</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이규현 목사 Gyu Hyun Lee</p> </div> </div>
---	---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장대현교회 세운다는 곳만 수십개…북한선교, 이벤트 아니다”

통일 이후 준비하는 임현수 목사의 경고 “단합되지 않으면 큰 혼란”

토론토큰빛교회 원로인 임현수 목사는 지난 7월 말 뉴욕지역에서 열린 할렐루야대회를 통해 북한선교의 큰 비전을 제시한 이후 8월 중순에도 휴스턴 지역을 찾아 제3차 글로벌 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에서 통일 이후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휴스턴에서 만난 임 목사는 통일이 곧 임박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가 북한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시기 놓치면 통일 후 한국교회가 크게 후회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특히 북한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교파간의 경쟁이 아닌 단합된 전략적 선교라고 밝혔다. 다음은 임 목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북한에서 풀려난 이후 더욱 열정적으로 북한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들의 북한선교에 대한 관심이 어느정도인가.

한국교회를 다녀보니 생각보다 열정적으로 북한선교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꽤 있었다. 다 언급할 수 없지만 2천-3천명 규모의 큰 교회들이 북한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젊은이를 데리고 훈련시키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 북한선교에 재정적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사람을 잘 준비하고 키우는 곳들이 있다.

이 밖에도 작은교회들 가운데도 굉장히 헌신된 교회들이 많았다. 30-40명이 안 되는 교회이지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당백처럼 북한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 주목할 점은 북한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도 꽤 있다는 점이다.

미주 한인교회들의 경우 접근성 측면에서 한국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어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불이 잘 안 붙는다는 느낌이다. 많은 곳을 다니면서 북한선교를 왜 하느냐에 대한 동기부여가 우선순위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임현수 목사 ©기독교일보

-북한선교에 있어 한국교회가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북한선교에 뜻이 있는 것은 좋은데 먼저 단합이 필요하다. 평양에 없어진 장대현교회를 다시 세우겠다는 교회나 사람을 본 것만도 수십 차례가 넘는다. 교회라는 것이 다

한번도 성경에서 건물로 표현된 적이 없는데 끈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다.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고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또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준비가 너무 약하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통일 이후 교단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지역에 들어가 단합되지 않은 선교를 하는 것이다. 북한선교만큼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을 수 있는데 제일 현실적이고 좋은 모델은 현재 군부대교회다. 군목들이 교단에 소속돼 있지만 군 교회 자체는 교단이 없다.

탈북 기독교인들의 연합체인 북한기독교총연합회를 만들었는데 컨트롤 타워를 하나로 해서 서로의 사역을 다 존중은 하되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 쓸데없는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맡은 지역에 충실해야 한다. 면 단위까지 나눠서 통일이 되면 일시에 중복되지 않게 선교할 수 있도록 준비할 책임이 있다.

김대원 기자

“휴스턴 지역에 북한선교의 불이 확산되기를”

휴스턴한빛교회 정영락 목사, 북한선교와 복음통일 비전 밝히



휴스턴한빛교회 담임 정영락 목사 ©기독교일보

휴스턴한빛교회(담임 정영락 목사)에서 열린 제3차 글로벌 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가 지난 20일 마무리된 가운데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와 북한선교의 열기가 휴스턴 지역에서 계속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 호스트를 맡아 행사 전반을 도왔던 휴스턴한빛교회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이번 대회를 마치지 않고 전 교회 차원에서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운동 및 북한선교운동을 이어가겠다는 비전을 밝히고 있다. 또 휴스턴한빛교회를 시작으로 휴스턴 지역을 비롯해 텍사스 주변 주요도시들에도 북한선교의 열기가 확산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휴스턴한빛교회 담임 정영락 목사는 이번 대회에서 특히 탈북민 신학생들의 간증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북한사회에서의 억압과 굶주림을 벗어나 한국을 찾은 이들의 탈북 과정과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간증을 들을 때 복음통일과 북한선교의 절실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북한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이번 대회에서 주요하게 제시됐던 탈북민 신학생 육성의 필요성에 크게 공

감했다. 3만 5천 탈북자들을 통일 후 북한선교를 위한 자원으로 보고 탈북민 신학생들을 미리 육성해 복음통일 및 통일 후의 북한 복음화를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는 취지다. 또한 현재 한국 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3만5천 명의 탈북민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도 당장 필요한 사역이기도 하다. 정 목사는 “북한선교의 실질적인 방향을 두고 기도해 왔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길이 보였다”고 말했다.

휴스턴한빛교회가 특별히 북한선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 정 목사는 북한선교는 한인 디아스포라교회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라는 소신을 밝혔다.

“처음에 휴스턴한빛교회에 부임하면서 선교에 대한 철학을 교인들에게 다 설명했습니다. 우선은 교회가 소속된 교단인 미주고신에서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우선적으로 돕고, 그 다음 북미에 있는 교회로써 남미선교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써 북한선교를 반드시 우리 한인교회는 해야 하고 중국과 일본까지 선교를 확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권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교회적으로는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과는 90% 이상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선교사들을 교회로 직접 초청해 해당 선교지에 대한 간증 및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남미선교의 경우 고펀탈라를 비롯해 계속적으로 선교지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북한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정 목사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휴스턴 지역에 복음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운동과 모임을 이어나간다는 비전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교회는 이번 3차 대회 직

후인 지난 21일 주일예배에도 시카고에서 활발하게 북한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북한내륙선교회 임현석 목사를 초청해 북한선교에 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 일정에 모두 참여했던 임 목사는 오랜 기간 북한선교에 헌신하면서 현재는 미주 각 지역의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네트워크 구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휴스턴기독교교회연합회장을 역임했던 정영락 목사는 이미 지역 한인교계에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는 목회자다. 항상 목회적인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추진해가는 리더십 가운데 휴스턴한빛교회는 선교에 있어서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지금까지 선교영역을 착실하게 확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휴스턴한빛교회가 북한선교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시작을 알릴에 따라 북한선교의 지역적인 확산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정 목사는 앞으로 이 운동이 휴스턴교협 차원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되고, 또 지속적인 북한선교 네트워킹을 통해 더 넓은 지역까지 확산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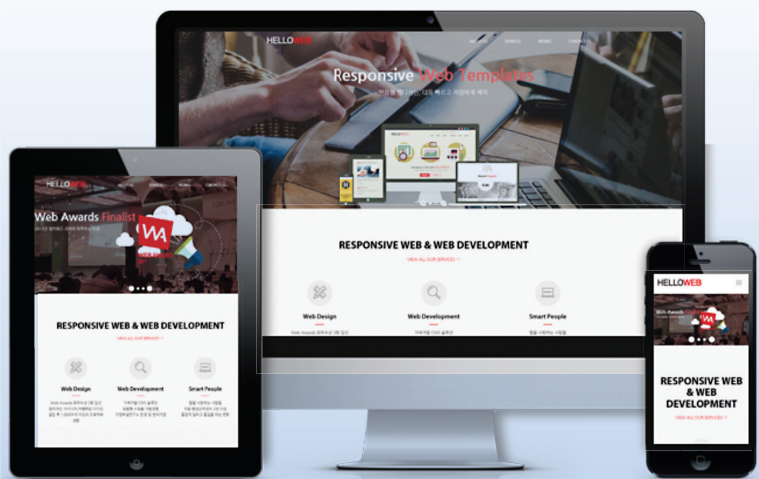
김대원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랜드,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교회 웹사이트 제작 \$300

개척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님들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드립니다.



제작비	\$300 +
기본사항	Front Page + 5pages (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야함) 소개/비전/사역/설교/계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추가사항	1Page 초과시 \$50 추가 한영 페이지 제작시 \$100 추가(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야함) 소개/비전/사역/설교/계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관리비	\$20/월(호스팅) - CPanel, SSL, Mail \$30/월(관리비) - 선택가능

웹사이트는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Cpanel 및 Admin 정보 제공함 (관리내역: 비 정기적인 웹사이트 컨텐츠 수정 및 Update) 정기적인 유지관리 요청시 별도 협의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PC, 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에 맞게 디스플레이 되는 웹사이트)

계약 외 서비스

월 관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웹사이트 수정은 유료임

Text 수정 : \$10 +
이미지 작업: \$20 +
기타 서비스는 내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공동의회’ 아닌 ‘공동은혜’ 되었다”

감사의 마음 담긴 편지,
28일 교인들에게 전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최근 있었던 공동 의회와 관련, 감사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28 일 교인들에게 전달했다.

김 목사는 편지 서두에서 “아무래도 예배 중에 긴 인사를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편지로 감사의 인사뿐만 아니라 다짐의 말씀까지 짧게 드리고자 한다”고 썼다.

이어 “지난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었던 공동의회를 잘 마치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기도로 준비해주시고 은혜로 감당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지만,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공동의회에 마음 다해 참여해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너그러워 받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덕분에 ‘공동의회’가 아니라 ‘공동은혜’가 되었다”고 했다.

앞서 명성교회는 지난 21일 저녁 공동의회

를 열고, 김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결의를 재확인하고 그를 위임목사로 재추대했던 당회 결의를 추진했다. 당시 이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총 투표자 6,192명 중 6,119명이 찬성(98.8%)했다.

김 목사는 “사실 공동의회를 향한 큰 우려가 있었다”며 “하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조심스러웠던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진실된 기도 덕분에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예배당 입장조차 쉽지 않았던 긴 줄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고 결코 짧지 않았던 공동의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참여해주셔서 큰 감동이 되었다”며 “무엇보다도 공동의회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덕과 품격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렸을 때, 한마음으로 준비해주시고 임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부끄럽지만,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저는 스스로 70점을 주기가 망설여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보여주시는 귀한 마음은 단지 담임목사를 인정하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영상 캡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고 느꼈다. 한 개인을 향한 지지가 아니라, 앞으로 달려갈 명성교회의 미래를 향한 응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에 저는 더욱 겸허하고 낮은 마음으로 힘을 다해 교회와 맡겨주신 사명과 선한 목자되신 주님의 소중한 양 떼를 섬기겠다”며 “또한 반대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의

소중한 교우이심을 기억하며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고 열심히 목회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목사는 “마지막으로 명성교회가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복음과 섬김의 사역들을 더욱 순수하고 유익하게 세우가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이찬수 목사, 한 달여 만에 분당우리교회 강단 복귀해 설교

“달려갈 방향 잡았다면, 거침없이 올인하라”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여름 휴가철 이후 한 달여 만에 강단에 복귀해 주일이었던 지난 21일 ‘거침없이 달려가기 위해(사도행전 20:22-24)’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찬수 목사는 “최근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에서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얻었다. 세계 최초의 유인 동력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와 경쟁했던 새뮤얼 랭리 교수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다”며 “미국 육군성에서 그에게 당시 5만 달러를 지원하고 주변에 드림팀이 만들어져 그를 도울 정도로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초라한 무명의 인물을 이기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랭리 교수는 비행기에 대해 라이트 형제만큼의 열정이 없었고, 오히려 업적을 찾아 헤맸기 때문이었다. 랭리 교수는 비행기를 만드는 자체보다 이를 통해 얻는 부와 명성 등에 더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이라며 “이에 반해 라이트 형제는 아무것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오직 비행기를 만드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 이 차이가 랭리 교수를 뛰어넘어 비행기를 만들게 된 동력이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저는 목사니까, 굉장히 도전이 됐다. 제가 목회 자체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목회를 열심히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다고 평가를 받고 명예를 누리는 데 관심이 있는지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며 “그러면서 랭리가 아니라 라이트 형제가 되고 싶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기도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본문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바울처럼 꿈을 향해 달려도 제한과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 부부는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이라고 하듯, 같이 꿈꾸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달려나가자”며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거나 가두지 말고, 설교 제목 그대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거침없이, 여한 없을 정도로 해 보자. 바울을 죽이겠다던 결사대 40명도 바울을 막지 못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도전하자”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거침없이 달려가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로 ‘인도하심으로 인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수 목사는 “앞일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확신을 주신다.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귀 기울인다면,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도전하다 위기에 빠졌을 때, 본문 속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조건은 ‘올인(All-in)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달려갈 방향을 잡았다면 올



이찬수 목사가 8월 21일 설교하고 있다. ©유튜브

인,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풀이했다.

이 목사는 “주님의 가상칠언 중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였다. 원어로 보면 당시 군인이 임무를 마치고 상관에게 보고할 때, 일꾼이 맡겨진 일을 다 하고 주인에게 보고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한다”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데텔레스타’였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인간 만드시는 데 당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시면서까지 올인하신 것”이라

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걸 다 거신 존재이다. 이 사실 때문에, 목회하다가 힘들고 뭐가 잘 안 되고 막히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를 다시 읽는다”고 고백했다.

또 “오늘 우리 시대는 사는 게 다 힘들다고 한다. 청년은 청년이라서, 아버지는 아버지라서, 엄마는 엄마라서, 은퇴하신 어른들은 어른이라서, 목사는 목사라서, 장로는 장로로서 힘들다”며 “하지만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소리 해선 안 된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반드시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예수 믿는 우리 삶의 신비는 어제까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살았더라도, 오늘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다 치유되는 신비로운 삶이라는 것”이라며 “오늘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남은 생애를 시시하게 살지 않기를 다짐하자. 우리 인생이 비록 라이트 형제처럼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안에 불타오르는 열망을 품고 나아가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격려했다.

이대웅 기자

CDTV 미주기독교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수면 대장내시경
- ♣ 수면 위내시경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새 생각, 새 기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美 목회자들, 교회 내 女리더십은 'OK' 女담임목사는 '글쎄'

대부분의 복음주의 목회자들은 여성이 담임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다른 리더십 역할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는 최근 개신교 목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회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3.2%였다.

2021년 9월 1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개신교회의 담임목사 또는 단독 목회자들은 여성이 교회 내에서 일부 리더십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거의 만장일치로 지지한 반면, 담임목사로서의 여성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라이프웨이리서치의 스콧 맥코넬 상무는 "일부 목회자들이 여성을 목회자, 집사, 혹은 남성을 가르치는 리더십 역할과 구별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이러한 특정 역할에 관해 교회에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개신교 교회는 그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 중 94%는 "교회에서

여성의 어린이 사역을 허용한다"고, 92%는 "여성이 위원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89%는 "여성이 교회에서 10대를 섬길 수 있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여성이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85%), 집사로 봉사할 수 있다(64%)"고 답했다. 이에 비해 "여성이 교회에서 담임목사가 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55%에 불과했다.

복음주의 목회자의 44%와 침례교 목회자의 14%는 자신의 교회에서 여성이 담임목사로 섬기는 것을 허용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침례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교회 25%와 루터교 47%, 소속 교단이 없는 목회자의 43%가 여성 담임목사를 허용하는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 감리교(94%), 오순절(78%), 장로교/개혁교 목사(77%)의 대다수는 여성이 담임목사로 섬기는 것을 허용하는 교회 출신이다.

압도적인 다수의 침례교인들은 "교회에서 여성이 어린이(90%)와 10대(81%)를 섬기도록 허용하고 위원회를 이끌게 했다"고(87%) 답했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침례교회는 오순절



남침례회 소속인 새들백교회는 지난 5월 6일 처음으로 여성 목사를 안수했다. ©새들백교회

교회와 감리교회보다 여성의 어린이 사역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전통적인 교단의 거의 모든(99%) 목회자들은 "여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순절교회(98%)와 감리교회(97%)도 침례교회(81%)보다 여성이 10대를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았다. 약간 높은 비율의 루터교회 응답자들(87%)은 여성의 사역을 허용한 반면, 그리스도의교회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74%).

여성이 교회에서 위원회를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모든 감리교 목사(98%)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루터교의 92%, 장로교/개혁교 목사의 90%가 그 같이 답했다.

그리스도의교회에 소속된 응답자의 약 절반(49%)은 "교회에서 여성 집사를 허용한다"고 했으며, 루터교의 60%, 오순절교의 83%, 감리교의 88%였다.

대부분의 비교과 목사가 여성 목사를 허용하지 않는 교회를 대표한 반면, 93%는 "교회에서 여성이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하도록 허용한다"고 답했다.

강혜진 기자

美 성경박물관, 1천 년 넘은 '복음서 필사 원본' 정교회에 반환

1차대전 중 불가리아 군대가 그리스 수도원서 약탈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성경박물관이 1917년 불가리아 군대에 의해 약탈당했던 복음서 필사 원본을 최근 그리스정교회에 반환했다. 이는 작성된 지 1천 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성경박물관 브라이언 하이랜드(Brian Hyland) 큐레이터는 "제1차 세계대전 중 그리스의 코시니트자(Kosinitza) 수도원에서 약탈당한 수백 개의 귀중품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

래된 필사 복음서 중 하나의 원본을 확인했다. 성경박물관은 이를 2011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구입했다"고 덧붙였다.

성경박물관 측은 8월 28일 아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수도원에서 공식 반환식이 열릴 것"이라며 "이 복음서 원본은 불가리아 군대에 의해 약탈되기 전, 400권 이상의 책과 더불어 수백 년 동안 종교 예배에 사용돼 왔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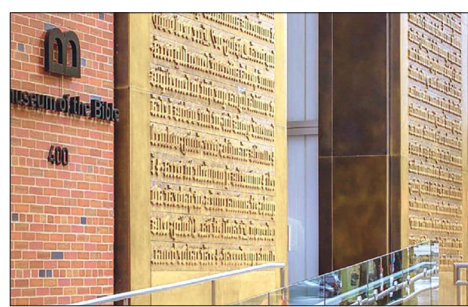
박물관은 2020년 동방정교회 세계 지도자인 바르톨로뮤 1세 총대주교에게 원본을 반환하겠다는 뜻을 알렸고, 총대주교는 2021년 10월부터 박물관에 이를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총대주교는 또 "복음서 원본의 귀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박물관 복음서 필사 원본 전시회에 3권의 원고를 더 빌려 줬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모든 소장품을 조사한 성경박물관은 "수도원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미국의 다른 박물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정당한 곳에 그것을 돌려 보내길 희망한다"고 했다.

최고 큐레이터 책임자인 제프리 클로하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확실히 시장에 도전이 있다. 시장의 상황은 한동안 유동적이고, 어떤 경우 수십 년간 합법적이지 않은 원인을 갖고 있다"고 했다.

성경박물관은 지난 2월 분쟁 중인 원고 5



©성경박물관 트위터

천여 개와 파괴된 조각에 대한 권리를 미국 정부에 양도하고, '아랍의 봄' 기간 불법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여겨진 유물들을 이집트로 송환한 바 있다.

유물에는 원고 조각, 장례식 마스크, 관의 일부 및 동상의 머리가 포함돼 있었다.

강혜진 기자

"설교가 처벌받는 시대, 미국에도 올 것인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 칼럼니스트인 조셉 마테라(Joseph Mattera) 박사가 미국에 초래될지 모를 '설교 불법화'에 대해 경고했다.

조셉 마테라 목사는 뉴욕시의 부활교회, 미국 사도지도자연합(USCAL) 및 그리스도 연합연합(CCC)을 이끌고 있다.

그는 칼럼에서 "2018년 4월 19일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하원 법안 AB 2943을 승인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회는 더 이상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 없고, 동성애 행동을 교정하려고 시도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캘리포니아 하원은 50 대 18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라고 화두를 던졌다.

또한 "(성에 대한) 전통적인 신념을 지지하는 교회와 다른 기관이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옹호할 시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테라는 "심지어 성별 위화감에 대한 심리치료조차도 이 법에 위배된다"며 "논치 빠른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논리상 다음 단계는 성경을 손보는 일이 될 것이라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에 대해 그는 "이는 동성애가 아닌, 교회나 개인이 성경대로 설교한 것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과 연관돼 있다"며 "심일조에 대한 성경적 실천이나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교한 사람이 고발되는 법이 통과되면 나도 같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의회가 수정헌법 1조를 축약한 표현의 자유에 반대 표를 던진 것은 급진좌파가 압제 통치를 법제화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공적 광장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바로 그 사

람들"이라며 "나아가 이들은 우려하는 시민들이 '신정 국가'(theocracy)를 도입하거나 자신들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려 한다고 비난한다"고 했다.

마테라는 "사실 그들은 사회에 대한 지배와 독재 이념 통치를 원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런 방식의 서사를 꾸미는 것"이라며 "이와 반대로, 미국 첫 헌법 입안자들은 종교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확고히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캘리포니아 의회가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고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파괴하려는 불길한 씨앗"이라며 "성경적 가치는 이미 우리의 헌법(표현과 종교의 자유의 가치)에 내재돼 있다. 이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동일한 종교적 권리와 표현권을 부여한다"고 했다.

마테라는 "교회가 문화를 버리고 일반 문

화가 (부도덕한) 비성경적인 국가 정신을 옹호할 때 헌법과 국가는 무너질 수 있다. 이는 품위, 이웃에 대한 사랑,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공통 가치와 결속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적인 방식처럼 필연적으로 생명, 자유,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공통 가치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의회의 법안 통과에 대해 "개인적인 축복에만 쫓겨 문화를 내팽개치고, 복음을 분열시킴으로서, 이러한 국가 미덕이 결여되면 결국 우리 헌법의 이념적 틀을 책임지는 책(성경)을 불법화할 수 있다. 검열되지 않은 성경과 설교를 불법으로 규정할 것"이라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만일 교회 전체가 깨어나지 않고, 인류를 섬기지 않거나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러시아, 중국 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류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모든 독재적 무신론 국가들이 그랬듯이 성경이 추방당하는 것을 목격할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했다.

김유진 기자

미 남침례회 "4년간 치솟은 물가, 담임목사 급여만 제자리"

미국 남침례회(SBC)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물가 상승에 비해 목회자의 임금은 4년째 그대로라는 결과가 나왔다.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는 가이드스톤(GuideStone Financial Resources)과 함께 남침례회 교단의 전임 담임목사, 교역자 및 사무직원 등 66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17.6% 급등한 반면, 같은 기간 전임 담임목사의 경우 급여 및 주택비를 포함한 사례비는 0.2% 증가했다. 하지만 퇴직금 및 보험료를 더한 급여는 오히려 2.1% 감소했다.

담임목사가 아닌 전임 사역자의 경우, 최근 4년간 급여는 7.5%, 총 사례비는 7.1% 인상됐다. 남침례회 전임 사무직원은 4년간 급

여가 17%, 총 사례비는 18% 인상돼 유일하게 물가 상승률을 따라 잡았다.

또 평균적으로 남침례회 교단은 예산의 거의 절반(46%)을 직원 보상과 복리 후생에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회자의 경우, 교회에 등록교인 1명이 늘수록 급여는 평균 14달러 증가했으며, 예배인원 1명이 추가될 때마다 33달러 더 올랐다.

목회 경력에 쌓일수록 사례비도 증가했다. 목회 연차가 1년 쌓일수록 급여는 382달러 더 늘어났다. 또 한 교회에 머물수록 급여도 124달러 더 올랐다. 하지만 목회자는 나이가 들수록 매년 635달러를 덜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와 석사 학위를 가진 목회자의 연봉 차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고 학력이 고졸 이하인 목회자는 4년제 이상의 학력자보

다 6736달러를 덜 받았다.

준학사 학위를 가진 목회자는 학사 학위 소지자보다 연봉이 7206달러 더 적었으며, 2년제 대학 졸업자는 4800달러 더 적은 연봉을 받았다. 반면, 박사 학위를 가진 목회자는 석사 학위 소지자보다 9794달러 더 높은 연봉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남부와 서부의 남침례회 목회자의 연봉이 비슷한 반면, 중서부 목회자는 4765달러를 덜 받았으며 북동부 목회자는 2만1511달러를 더 벌었다.

대부분의 남침례회 교회들은 목회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목회자가 받는 추가 혜택은 늘어났다.

조사에 참여한 남침례회 교회 중 59%가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18%는 목사

와 그의 가족에게, 14%는 목사와 그의 아내에게, 9%는 목사에 한해 의료보험을 제공했다.

출석교인이 50명 미만인 교회는 목회자의 69%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남침례회 목회자 5명 중 약 3명(58%)은 의료 혜택이 없는, 예배 인원 50~99명 이하의 교회를 맡고 있었다.

평균 100~249명이 출석하는 교회의 절반(49%)은 목사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았다. 250명 이상 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4명 중 1명(26%)이 의료보험을 제공받지 못했다.

급여와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휴가 일수도 교회 규모에 따라 달랐다. 전임 담임목사는 매년 평균 14일의 휴가를 받고 있으며, 출석교인 309명이 늘수록 목회자의 휴가 일수는 하루 더 늘어났다. 또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 오래 머물수록, 6년마다 하루씩 더 휴가를 받았다.

김유진 기자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회합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격려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 386-2233

씨니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최순환 담임목사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양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로 세례 함께 할리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r)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arang.org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정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디오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성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이고 내 길에 빛이나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vkum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미 법원, '건강보험에 낙태 포함' 캘리포니아주 명령 기각



캘리포니아 주 의회 © 크리스천 포스트

합사에 제한을 보내어 해당 기관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낙태 보장' 지침을 의료 계획에 "잘못 승인했거나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의료 보험에 낙태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낙태에 관한 사생활 보호법 및 사법부의 결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현행 건강보험 플랜에서 "차별적 보장 배제 및 제한을 없애도록 문서를 수정할 것"을 보험사에 명령했다.

아울러 "낙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인 만큼, 문서에서 낙태 서비스 보장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라"면서 "임산부 서비스와 합법적 낙태를 중립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고 교회들은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된다"라는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며 새 정책에 반대했다. 교회들은 종교적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새 정책을 알린 서신에 종교 면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거부당했다.

이후 관리의료부는 다른 단체의 종교 면제 요청을 승인했지만, 원고 교회들은 새로운 정책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미국 제9항소법원은 연방 대법원의 '폴턴 대 필라델피아시' 판결에 비추어 사건을 재심리할 것을 하급법원에 명령했다.

예레미야 갈루스 자유수호연맹 수석 고문은 법원 결정 직후 "정부는 교회나 다른 종교 고용주가 낙태 자금 지원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신앙과 양심을 침해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캘리포니아는 위헌적으로 신앙 기반 단체를 표적으로 삼았기에, 법원이 이 명령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기쁘다"며 "우리가 대표하는 교회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美 남성, 이슬람 테러단체 지원 및 지부 설립 시도



유투브에 등장한 IS 대원의 모습. © 유투브 화면 캡처

미 연방대법원 배심원은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 주에 'IS 센터' 설립을 시도한 남성을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연방 판사가 앨버커키에서 빌랄 무민 압둘라(Bilal Mu'Min Abdullah)로 알려진 허먼 레이본 윌슨(Herman Lyvonne Wilson·45)을 8월 2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뉴멕시코지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2020년 1월 23일과 2021년 11월 20일 사이 '타이틀 18, 2239A(b)' 항에 명시된 물질적 지원을 의도적으로 제공하고자 했다. 이 법은 IS와 같은 외국 테러 조직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014년 IS로 알려진 '이라크와 시리아 이슬람국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윌슨은 IS가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제공했으며, IS에 대한 그의 지원과 자원 제공은 기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기소장은 밝혔다.

기소장은 또 윌슨이 온라인 기록, 문서 및 기타 자료가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을 폐쇄함으로써 범죄 은폐를 지시 및 유도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공식 절차를 방해하고 영향력을 끼치려 했다고 명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온라인 플랫폼은 IS의 이념을 홍보하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미국 및 해외에서의 테러 공격을 논의하는 데 이용됐다.

윌슨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이 플랫폼을 관리해 왔으며, 뉴멕시코에서 IS 이념을 가르치고 전술적 기술 및 무술 훈련을 제공하며 미국과 해외에서 IS를 대신해 싸울 준비를 하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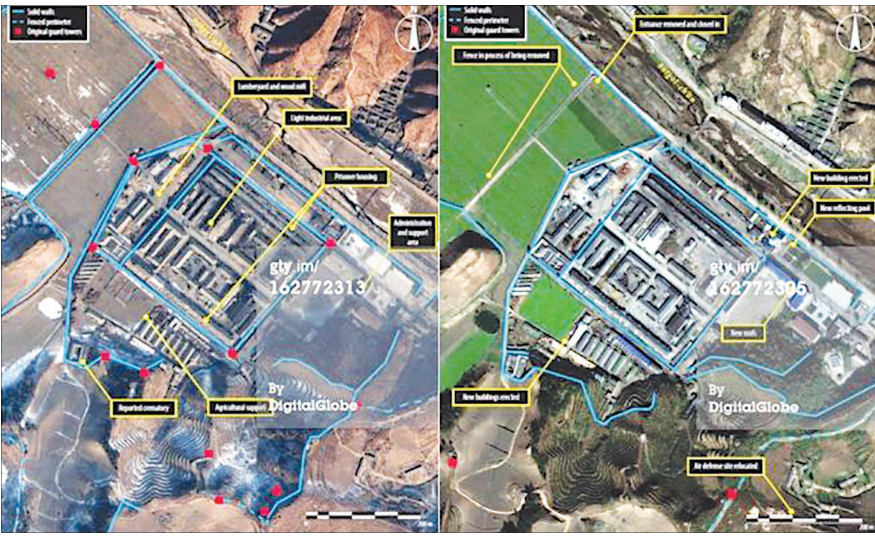
들을 모집해 왔다. 법무부는 윌슨의 이러한 시도가 IS에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2020년 9월 체포된 크리스토퍼 매튜스(Kristopher Matthews)와 제일린 몰리나(Jaylin Molina)는 "윌슨 때문에 ISIS 이데올로기로 급진화했으며, 그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매튜스와 몰리나가 체포되었을 때 윌슨이 온라인 플랫폼 회원들에게 그들의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은 회원들에게 '총기 훈련 자료 및 폭탄 제조 지침'을 배포한 것 외에도 친IS 선전물을 수집, 생성 및 배포하는 채팅방을 운영했다.

이로 인해 매튜스는 20년형을, 몰리나는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윌슨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각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현재 40년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강혜진 기자

北 정치범수용소, 전염병·사고·처형 등으로 수감자 2만 명 감소



북한 25호 수용소 위성사진. ©북한인권위원회

북한 정치범수용소(관리소) 수감자 수가 전염병 등에 따른 사망으로 지난해 7월 대비 약 2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국내 인터넷 뉴스매체 데일리NK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총 23만 2,400여 명이었던 관리소 수감 인원이 올해 6월 말 기준 20만 5,800여 명으로 약 1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용소 15호(요덕)에서 1만 3,900여명, 14호(개천) 6,200여 명, 18호(북창) 5,600여 명, 25호 5,000여 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16호(화성)과 17호(개천)에서는 각각 4,700여 명, 2만 400여 명 증가했다.

전체 수감자 감소 원인은 전염병과 보건 의료 문제로 인한 사망,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의 사고와 고문, 처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의 내부 소식통은 “상반년도(상반기) 14, 17, 18호 관리소에 방역, 보건 의료 공급이 전혀 되지 않아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며 “코로나 유행자(발열자)만 아니라 물에 의한 병까지 겹쳐 금방

들어온 입소자들이 못 견디고 쓰러져 나갔다”고 전했다.

또 “16호 관리소에서는 오래된 갱이 무너지면서 수감자 수백 명이 묻히는 사고가 있었다”며 “사고가 난 갱도는 제대로 된 동발목(갱목)도 없어 기어 다니는 구조였는데, 이번 사고로 관리소 탄광이나 광산 갱도 입구를 최대한 크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식통은 “(평산 관리소에) 지난 4월 입소한 남자 2명이 도주해 48시간 만에 사리원 시내에서 잡혔다. 이 사건으로 황해북도가 발각 뒤집혔고, 평산 관리소 관리가 문제시 돼 관리소장이 처벌받고 다른 교화소 과장으로 조동(전출)됐다”며 “관리소에서는 2명의 도주에 대해 알 만하다고 생각되는 60여 명을 고문하기도 하고, 징벌과제계획 수행으로 과오를 씻어야 한다면서 수감자들을 다그쳐 약 360여 명이 강한 노동 과정에 영양 부족 등으로 숨지기도 했다”고 했다.

김신의 기자

中, 삼자교회 가입 거부한 가정교회 해체

중국 당국이 국가가 통제하는 삼자교회 가입을 거부하는 교회들 단속을 위해 산시성 시안에 있는 역사적인 가정교회를 해체했다.

약 30년 전에 시작된 풍요의교회는 불법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이단’ 취급을 받았다.

이탈리아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비터윈터(Bitter Winter)’에 따르면, 관리들은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삼자교회 가입을 거부한 가정교회를 ‘불법 사회단체’라며 폐쇄했다.

비터윈터는 “이는 2021년 12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비중국화’ 및 ‘불법’ 종교단체에 대한 단속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모든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정부가 통제하는 삼자교회에 가입시키거나, 교회를 ‘불법’ 종교단체로서 해체하도록 강요하는 시진핑의 계획이 무자비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풍요의교회는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거나, 목회자들과 교인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리안 창니안(Lian Changnian) 목사와 그의 아들 리안 쉐리양(Lian Xuliang) 목사는 ‘재택 감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 금지령은 동일한 가정교회 네트워크의 일부인 중국복음협회(China Gospel Association)를 대상으로 내려졌다.

기독교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 Aid)’는 “당국이 이 교회 교인들에 대해 불법 집회·모금 및 장소 등록 혐의를 적용해 발표했다”고 했다.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리안 쉐리양 목사의 아내는 그가 이마를 맞아 큰 타박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눈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마른 피가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핏자국이 있었다. 팔과 손은 멍이 들었고 부어 올랐다. 의심할 여지없이 소위 법집행관들에 의한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목회자들과 사모 및 다른 사역자들은 지난 8월 17일



루안시의 삼자교회 십자가가 철거되고 있는 모습. ©비터윈터

체포됐다. 사모와 대부분의 교인들은 석방됐으나, 푸 후안(Fu Juan) 목사는 아직 석방되지 않았고 그 행방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석이 비공식 종교단체에 대한 단속을 촉구한 이후, 당국은 베이징, 산시, 산서, 길림, 쓰촨성에서 삼자교회 가입을 거부하는 교회들을 급습하고 있다.

8월 19일, 산서성 린렌에서는 약 100명의 무장 경찰관들이 부모-자녀 캠프에 참석 중이던 약 70명의 이른비연약 교회 교인들을 둘러쌌다. 경찰은 성인들을 구금하고, 교인 한사오동, 리지, 리산산의 집을 수색해 기독교 서적과 문서를 압수했다.

8월 21일, 길림성 장춘시에서는 경찰이 가정교회인 장춘선사인개혁교회 예배 현장을 급습했다. 성도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예배 참석자들은 이들에게 구타를 당했고, 2명의 여성은 심장마비를 앓고 입원을 해야 했다.

경찰관들은 불법 종교단체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구오 무윈 목사, 구 홍리양 장로, 장 리양 형제 등 아홉 명의 기독교인을 구금했다.

8월 14일, 베이징에서는 시온교회 멘터우 지부가 습격당했다. 컴퓨터는 압수됐고, 양중 목사와 아홉 명의 교인들은 구금됐다가 석방됐다.

중국은 올해 오픈도어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에서 17위를 기록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오명찬 담임목사.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최혁 담임목사.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은혜와평강교회 Eunhye & Pyeonggang Church. 박덕근 담임목사.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충현선교교회 Chunghyunseonggyo Church. 민중기 담임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가디나장로교회 Gardena Presbyterian Church. 신태섭 담임목사.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love.com.

가디나선교교회 Gardena Seonggyo Church. 이호민 담임목사.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대흥장로교회 Daehung Presbyterian Church. 김정훈 담임목사.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돌로스교회 Dolsos Church. 서보천 담임목사.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은혜로교회 Eunhyerogyo Church. 김경환 담임목사.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이종용 담임목사.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토렌스조은교회 Torrance Jo Eun Church. 김우준 담임목사.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토렌스제일장로교회 Torrance Jeiljanggyo Church. 고택현 담임목사.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오렌지카운티 지역

감사한인교회 Gamsahan Church. 구봉주 담임목사.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남가주동신교회 Namgaju Dongshin Church. 백정우 담임목사.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님의빛교회 Your Light Church. 주혁로 담임목사.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늘푸른선교교회 Neulpeureun Church. 안창훈 담임목사.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다우니제일교회 Downey Jeil Church.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00.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Laguna Hills United Methodist Church.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mc.org.

베델교회 Bethel Church.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얼바인온누리교회 Elbain Onnuri Church.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오렌지카운티인교회 Orange County In Church.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은혜한인교회 Eunhyehan Church. 행복한 교회 삼남은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함께 걷는교회 Hanke Gyeoneun Church.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남가주늘사랑교회 Namgaju Neul Sarang Church.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갯스윌연합교회 Gatswill Church.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기독교일보 기독교뉴스.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ja@gmail.com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김성한의 '바비도'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홍수를 경험하면서”

며칠 전 서부의 명소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지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사막기후이고 가장 대부분의 깊이가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일 년 치 강우량이 불과 세 시간 만에 쏟아져 국립 공원 전체는 거대한 진흙 강이 되어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다. 연일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이라 인명 피해도 있었고, 수백 명의 사람이 고립되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반면 유럽은 오랫동안의 가뭄과 기근으로 시달리다가 끝내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상훈 목사 주미전선교회 대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천재지변과 기이한 환경 변화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주시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싸인임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날마다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음에도 깨어 있지 못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 70인을 세우고 돌씩 세상에 보내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였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평안과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 그들이 얼마 후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였습니다” 했다. 그때 예수님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하겠다.

하나님의 종말을 향한 큰 계획 가운데는 우리 교회들을 통한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열방의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을 기대하시기 때문임을 믿는다.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될 그들에게 빛진 자들이다. 그 사랑의 구원의 빛을 갠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선교할 기회를 달라고. 세계 열방을 품고 영혼 구원에 전념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들 만나게 해 달라고. 선교 단선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자.

가톨릭이 영국을 지배했던 15세기 초엽이다. 헨리 4세가 왕위에 있었던 이 시기에 천주교는 심각하게 타락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화체설을 강하게 주장하며 성찬식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이요 피라고 가르치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했다. 물론 이단으로 정죄되면 경우에 따라 사형도 당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주교들은 회개로 얻는 용서가 아닌 뇌물을 받고 사죄를 선포하는 악을 행했다. 나아가 그들은 라틴어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가르치며 영어 성경을 읽는 것을 이단적 행위라고 가르쳤다. 영어 성경을 읽다가 적발되면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화형에 처해지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재봉 직공 바비도는 ‘영어 성경 읽기회’에 참가하면서 영어 성경을 읽고 참 진리를 깨달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바비도는 사제들의 거짓과 위선에 분노했다. 사제들은 성경의 해석을 독점하고, 평범한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온갖 죄를 자행하면서 ‘자신들의 삶과 언어는 거룩하다!’라고 우기는 모습이 역겨웠다.

당시 교황청은 순회 종교 재판을 운영했는데 자신들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로마 교회는 성직자들의 지도를 받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잔인하게 처형했다. 주로 화체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정죄의 대상이었다. 순회 종교 재판소는 이단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방면하였다. 하지만 전향과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잔인하게 화형 시켰다.

바비도는 온 세상에 넘치는 타락을 본다. 천주교 지도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었다. 성경만이 진리요, 그 밖에 모든 것은 천주교 성직자들의 허구라고 열변을 토했던 ‘성경 읽기회’ 지도자들이 너무 쉽게 무너졌다. 종교 재판장에서 성경 읽기회 지도자들은 너무 비겁하고 초라했다. 그들은 재판장에서 너무 쉽게 자신들의 신념을 포기했다. 그들은 쉽게 영어 성경을 읽는 것이 잘못이요,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시인하고 눈물로서 회개하고 목숨을 부지하였다.

리 퍼붓는다. 그들은 바비도에게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한다. 무지몽매하고 악한 군중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때 헨리 4세의 아들 태자 헨리가 나타나 바비도를 구해 주겠다고 회개를 권유했다. 그러나 바비도는 ‘지옥에서 먼저 기다리겠노라’라고 빈정댔다. 사형대에 올라 불을 지피는 순간, 태자는 돌연 불을 끄고 바비도를 꺼내게 했다. 바비도의 용기와 신념에 감동한 태자 헨리가 바비도를 무조건 살려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비도는 태자의 동정(同情)을 뿌리치고 당당히 죽음을 택했다. 태자는 당황하고 바비도의 양심과 양심으로 추구하는 정의를 인정하는 독백을 했다. 이상은 김성한의 소설 (바비도)의 줄거리다.

작가 김성한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일본 도쿄 대학교 영문과를 거쳐 영국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당대 지식인 작가였다. 1950년 서울 신문에 단편 <무명로>가 당선되어 등단한 후 영국역사, 그리스 신화 등 동서고금의 사회상을 무대종래의 서정적, 토속적인 소재 공간을 벗어났으며 특유의 지적이고 간단명료한 소설 기법을 선보여 한국 소설의 체질적 현대화에 기여했다. 철저한 역사적 고증 작업을 거친 간결한 문체의 작품들은 한국 역사 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가로 평가 받는다. 이런 점에서 <바비도>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작품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바비도>에서 김성한은 영국에 실존 인물 바비도의 삶을 통해 양심을 지키는 용기의 힘을 보여준다. 평론가들은 ‘김성한이 이 작품을 통해서 격동기 조국 지식인들의 비겁함을 고발한 것’으로 평문한다. 아울러 15세기 영국 사회처럼 사회적 죄와 구조적 악에 불평하지만, 실제적 위협 앞에서 너무 무기력한 시민들을 고발한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 시대의 지식인들은 진정한 용기를 가졌는가? 신앙인인 우리는 이런 용기가 있는가? 그토록 비난하던 군사정권을 민주화 세력들이 슬그머니 닳아 버렸다. 그들을 비난하던 사람들도 별 차이가 없다. 타도를 외쳤던 악과 죄를 반복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무기력하게 죄에 맞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 시대야말로 바비도의 용기가 필요한 때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제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미국교육위원회 (CAEP) 인증, 2021년 교육부 장관 표창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www.ggb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www.azusa.edu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변방인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www.itsa.edu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하나님이 없다하는 자의 하나님(1)

시편 53:1-6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끄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노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 진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흠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6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도다

본문은 시편 14편과 53편의 내용과 몇 절을 제외하고는 비슷하는데, 모두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14편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부르는 찬양이라고 되어있고 여기는 마할랏이라고하는 악기에 맞춘 찬양이라는 부분이 다르고 5절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하게 되고 방종하며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속성을 피 가운데 되물림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해서 '목표가 어긋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육체를 흠을 재료삼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코로 불어 넣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부분이 우리 흠으로 된 육체 가운데 파생되어져서 그 영과 흠으로 된 육체가 합성체로 인간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흠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 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은 본체이신 하나님을 흠모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적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그 영의 본성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절의 '어리석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 미련하다는 뜻도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2절의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동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지각(知覺)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있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지각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라고도 하며 일 반계시라고도 합니다.

계시(啓示, revelation)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들에게 하나님이심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심을 말합니다.

자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특별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체험과 감동, 조명과 계시, 성령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알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그저 깊이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헛소리처럼 생각하던 사람이 어느날 하나님 앞에 엄청난게 얻어맞고 죽을 지경에 몰렸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매달릴 수 밖에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인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이런 고백들은 우리는 기독교 방송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기독교 계통에서 발간하는 신문, 잡지들이 1,300여종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체험적 신앙고백, 간증같은 것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는지,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2절). 3절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서 마귀와 함께 더러운 생활을 일삼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한탄하시는 것 같은 여운을 남기신 말씀이십니다. 4절에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무지한 백성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잡아 먹듯듯이 위협을 가하고 행패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쓰러뜨려서 그들과 함께 마귀 앞잡이가 되어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함께 지옥에 들어가도록 쉬지않고 기회를 엿보면서 우는 사자가 삼킬 대상을 찾아 노리듯이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을 삼켜서 지옥에 토하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양심은 영혼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소망을 가꿀 수 있는 잣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성을 잃고 하나님이 없다고 허황된 허구를 외치고 광기를 일삼는 사람들도 정신이 온전할 때는 자기 스스로의 죄책감이 어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늘에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게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기 바쁜것은 양심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을 묵살하면서 악을 더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6명을 죽인 유영철과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도리어 자신이 100명까지 죽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사탄의 지령이나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법정에서 유족들을 향하여는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장담하고,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악질들, 이성을 잃은 사람들, 심령이 화인맞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양심속에도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것을 사는 목적으로 알고 참 믿는 사람들, 성령받은 사람들,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영적성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진액을 다하여 힘쓰고 투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괜히 미워하고 시비를 걸고, 훼방하며 대적하기를 일삼습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진을 치고 떡 먹듯이 잡아먹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발악하고 훼방하고, 대적하고, 살기등등해서 위협하고, 때리고 욕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양심 밑바닥에는 자신이 전혀 두려워할 환경도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여 교구장에게 전화를 받게되면 집안에 대사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하루종일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양심에 잘못됨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집안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주일에 대사가 있게되면 토요일이나 주일 전에 찾아가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축의금도 전달하며 상황을 잘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자주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입니다. 성도가 땅에 사는 동안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훼방과 대적과 횡포를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마귀 소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처럼 만사형통하고 순풍에 돛을 단 듯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하면 기도도 신앙고백도 중단될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이 세상조건에 머물고 싶어 하늘소망을 내버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영적 소속관념을 분명히 해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성령을 모셔 살아가길 바랍니다. (계속)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성교회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동희 원장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강준민 칼럼

집중된 관심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며칠 전에 선인장에 핀 꽃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선인장을 집에서 키우지만 이번에 핀 선인장 꽃은 제 생애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놀랍고 신비로웠습니다. 제 시선이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저녁 무렵에 관심을 기울여 보았던 선인장 꽃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결코 떠오르지 않았을 신비로운 선인장 꽃이 떠오른 것입니다. 관심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關心)이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관심(關心)이란 단어 속에는 마음 "심(心)"이 담겨 있습니다. 관심은 우리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심은 스쳐가는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관심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관심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약과에 관심을 가짐으로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관심을 가졌다면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며,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싫어했습니다. 떠나온 애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길을 애굽으로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관심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목상하며 깨달은 관심에 대한 통찰을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미움은 아직 관심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타락한 관심입니다. 비뚤어진 관심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인간은 사랑하는 것에 의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우리 마음의 색갈이 결정되고, 우리 영혼이 몰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초점을 맞추면 놀라운 일들이 전개 됩니다. 어릴 적에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에 초점을 맞추어 본 적이 있습니다. 태양 빛을 받아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면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관심이란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듯 집중하는 것입니다. 초점 맞추기는 집중적인 관심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은 스쳐가는 관심이 아닙니다. 한 두 번 관심을 기울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집중적인 관심,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끈질긴 관심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주제를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깊이 연구하는 중에 그 분야에 박사사 됩니다. 교수가 됩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영성(靈性)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시작된 영성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영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영성에 관한 책들을 깊이 읽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영성가들을 만나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영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뿌리 깊은 영성》이란 책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관심은 열림입니다. 관심을 갖게 되면 눈이 열립니다. 관심을 갖게 되면 깨달음이 열립니다. 관심을 갖게 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관심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한 분야를 집중해서 깊이 연구하게 되면 그 분야가 열리게 됩니다. 그 분야를 통달하게 됩니다. 한 분야를 깊이 통달하게 되면 다른 분야도 통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넓고 얇게 아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을 오래 깊이 몰두해 통달하면 결국 모든 것으로 통하기 마련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주제를 깊이 통달하는 경험은 다른 주제도 관심만 가지면 깊이 통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좋은 관심은 좋은 만남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좋은 관심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에 관심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것에 집중된 관심을 가짐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기도드립니다.

메타버스 속 MZ 세대 시리즈 6-①

메타버스 속 범죄

메타버스 속 위험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메타버스에서 생활할 때,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까요?

〈메타버스 골드러시〉, 민문호 저자는 MZ 세대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현실과 같은 유형이지만 사법권을 적용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재하지 못하는 범죄도 자주 발생할 거로 보입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잇할 권리에 대한 침해,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발달로 인한 범 분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폭력, 성범죄, 사기,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말이죠. 게다가 메타버스에 과도하게 몰입하면 현실 세계의 나와 가상 세계의 나의 괴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요? 바로, 아직 메타버스 안에 법적 제

도가 마련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렇기에 더 불법이 성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좀 더 조심해야 합니다.

1) 첫째, 지식재산권 침해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는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저작권, 상표권 도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작자가 개발한 것을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복제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찌가 한 아이템을 공개하자 10일도 안 되어 구찌 IP를 활용한 2차 콘텐츠가 40만 개 이상 만들어졌습니다.

메타버스 안에 기본적으로 저작권과 사용자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체계적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사용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2) 둘째, 메타버스 안에서 언어폭력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아바타를 통해 서로 교제합니다. 익명으로 하다 보니, 다

중 인격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본모습이 아닌 다른 폭력적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익명으로 하다 보니, 예의가 없게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고요. 이는 나중 언어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언어폭력은 나중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2019년 유튜브버로 아바타를 통해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해 “후배를 괴롭힌다”는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피해자는 심한 악플과 비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는데, 먹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위 사실을 퍼트린 유튜버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 안에선 어떤가요? 예를 들어 아바타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면, 고소당할까요?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의견이 반반 갈립니다. 메타버스 법적 이슈도 온라인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과 ‘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습니다.

윤중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온라인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명예훼손과 같다”며 “아바타 주인이 있을 테고, 나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찾게 되면 명예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정말 명예훼손이 될지 거론되었을 때처럼, 메타버스 안에서 거론되고, 나중 현실화할 겁니다.



김영한 목사
품은 교회 담임
Next 세대 Ministry 대표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심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 서울 (310) 538-3333 | LA (323) 582-2424 |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진유철 칼럼

기도하는 믿음을 위해 기도원에 갑니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딤후2:1)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모든 우선순위의 첫 번째이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4가

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풀어 설명합니다. 설명하자면, 한국 라면의 종류가 400여종이 넘어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뭉뚱그려서 그냥 라면 끓인다고 하지만, 잘 아는 사람에게는 신라면인지, 안성탕면인지, 짜파게티인지, 불닭볶음면인지, 디테일하게 말하고 끓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간구(supplication)는 ‘탄원하다, 애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의 결핍과 시급함으로 간절히 연기를 구하는 애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기름을 짜내듯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간절함으로 하신 기도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기도(prayer)는, 가장 대중적인 의미의 간구와는 다르게 기도 본래의 뜻과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 꼭 필

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의 기도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했던 특별한 기도나 입시나 진급을 위한 기도와 같은 간구는 자기 소원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넓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 있을 때만 연락하면 친해지겠습니까? 보통 때도 대화하고 연락하는 일상적인 친밀함이 있어야 친구가 되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일상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고(intercession)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제사장 정신은 먼저 믿는 자들이 믿음 없는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믿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남도 구원받게 하고, 내가 배부르면 남도 배부르게 하고, 내가 훌륭하면 남도 훌륭하게 하는 만인제사장의

사명을 위해서는 도고,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중보기도는 하면 할수록 영적인 그릇을 넓고 크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중보기도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가 됩니다.

마지막이 감사입니다. 사실 간구와 기도와 도고는 다 비슷한데 감사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묶음 속에 감사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도가 감사로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도를 완성하는 마침표이고 신앙의 절정입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지만 감사를 잊으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이 되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첫째로 기도를 권하듯이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첫째로 증거 하고 가르치므로 참된 승리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김한요 칼럼

2023 정책회의를 다녀와서...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매년 8월이 되면 저희 베델목회자들은 내년 계획을 위해서 정책회의로 모입니다. 작년에는 시애틀에서 모였는데, 올해는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동차를 타고 인근 지역을 찾다가, 교회에서 1시간 반 거리인 태매쿨라로 가게 되었습니

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지만, 처음으로 태매쿨라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길들이 잘 닦인 것을 보며, 계획되어진 도시임이 느껴졌습니다. 단지들도 새건물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큰 병원도 보이고, 날씨도 바다 바람이 느껴지는 시원한 곳이었습니. 집값도 얼마인보다 훨씬 저렴하고, 또한 남가주에 유일하게 포도원이 되어 유명한 와이너리가 있는 곳이었습니.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베델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목회진들과 함께 3박4일 한 집에서 동거하면서, 서로를 향한 끈끈한 연대감을 증진하고, 큐티로 매일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교역자회의에서 말은 사역만 보고 하고 보고 받다가, 서로의 삶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베델의 한 가족인 것

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같이 기도하고, 인근 지역을 산행하며 같이 땀 흘린 추억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 장로님들께서 첫 식사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그 먼 길을 찾아 오셔서, 맛있는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섬겨주셨는데, 우리 목회진들은 말 그대로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에 계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오셔서 밥 한끼라도 섬겨주시겠다고 오셔서 정성 드려 요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외쳤습니.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는 베델의 교역자된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고무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 내년을 계획하는데, 저는 담임목사로 부교역자들의 그 마음들이 얼마나 귀하고 고

마웠는지요... 더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었습니다.

일만 한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놓고, 같이 웃고, 같이 운동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때, 더 의욕적으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트타임까지도 다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정책회의를 마치고 수요예배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오는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의욕과 열심으로 충만했습니다.

힘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힘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 쉽고, 그 힘은 하나님의 사역에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는 힘에서 얻는 동기부여와 기쁨과 충만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축선교
박상원 목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M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명의 지기(之己)도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가.
친구가 있다지만 서로 사기를 치고 이용

해 먹는 사이라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런 점에서 나는 정말 과분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 곁에는 생사와 고락을 함께할 친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중에 M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는 썩 좋지 않지만 나쁘지 않은 출신 성분에 군에 입대한 뒤 32세에 대위라는 계급장을 달았고, 부직 장교 축출로 제대한 뒤 모 회사의 초급관리자를 지낸 사람이다.

나는 시 당위원회 조직부에서 일할 때 M의 회사를 담당하면서 그를 알게 되었다. 이후 나는 시 당에서 쫓겨났고, M 역시 회사가 비밀리에 추진한 아편 밀수 사건으로 인해 책임을 지고 광산 노동자로 쫓겨났다. M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96년에 전국을 비상사태로 몰아넣은 콜레라로 인해 아

내와 아들 딸 모두를 잃어버렸다. 그후 M은 술에 절어 사는 노숙자가 되었고, 간부 시절의 운유한 성품은 온데간데없고 주린 사자처럼 일촉즉발의 위기를 몰고 다니는 폭군으로 변해 버렸다.

하루하루 망가져 가던 1996년 가을 어느 날 밤, M은 그에게 앙심을 품은 괴한의 칼에 찔려 죽어 가고 있었다. 쓰러진 그를 구해 줄 사람을 기대하기에는 북한의 밤은 너무 조용했고 깊었다. 그런 그를 밤마다 도적질하러 거리를 쏘다녔던 우리가 발견했고, 마침내 M은 죽음의 문턱에서 무사히 이생으로 건너올 수 있었다. 더구나 M은 그를 정성껏 간호하던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 평생의 반려자로 삼게 되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참으로 세심하고 놀라

워서 거의 죽어 가던 그를 살리시더니 평생의 반려자까지 만나게 하시고 상처 받아 망가져 가던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만지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M은 이후 밤거리를 쏘다니며 도적질하는 나를 원수의 입술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지옥을 향해 줄달음질하려거든 자네 혼자 하게. 이 선한 사람들까지 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말고!”

내가 도적질을 위해 “돌격 앞으로!”를 외칠 때마다 M은 “지옥”을 운운하는데, 한 번 들어도 끔찍한 소리를 계속 듣자니 너무 괴로웠다. 밤거리에 쓰러진 그를 데려온 나 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였다. (계속)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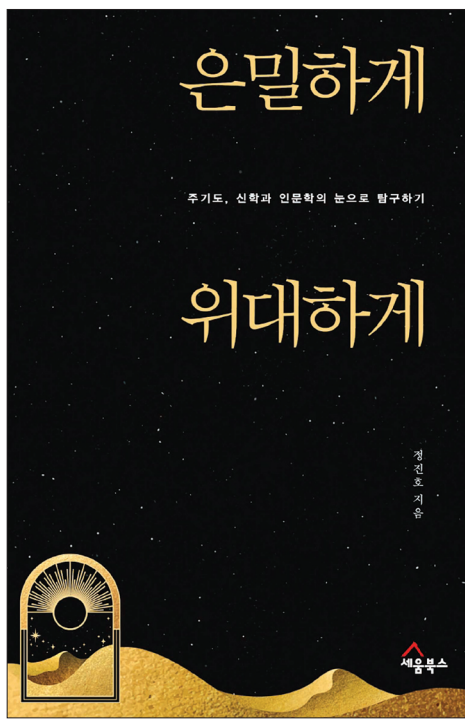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지금까지와 다른 눈과 깊이로 맛보는 주기도

인문학의 눈으로, 주기도문이라는 성경을 탐구하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정진호
세움북스 | 400쪽

신학과 문학,
철학과 역사의 눈으로
탐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주기도 특강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마저도 곧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남으리라.”

존 스토트는 삶의 후반부에 ‘이중 귀 기울임’에 집중하며 모든 신학과 가르침은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동시에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IVP에서 팀 체스터의 성찰 질문을 달고 분권으로 재출간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존 스토트의 이 중요한 핵심을 제대로 반영한, 성경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균형이 잘 잡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중 귀 기울임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 독자의 생각을 듣느라 성경의 목소리를 놓치거나 반대로 성경에만 귀를 기울이다가 독자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학’도 그러한다, ‘인문학’은 더욱 그렇다. 인문학은 아주 잘 사용하면 독자의 관심사를 사로잡아 성경 앞까지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성경이 강조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심어 주거나 인문학에서 길을 잃고 성경의 핵심에 이르지 못하게 되기가 쉽다.

인천에서 ‘주님의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를 개척하여 섬기면서 초교과적 목회자들을 위한 ‘브솔 영성 아카데미’를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정진호 목사는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책을 통해 주기도를 ‘신학과 인문학의 눈으로 탐구’했다(세움북스, 2022).

주기도를 주제로 쓴 ‘신학’ 책과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인문학의 눈으로’라는 부분이 이 책의 차별화된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첫째, ‘인문학’이 독자에게 얼마나 장점으로 와닿을 수 있는지에 있다. 그리고 둘째, 저자가 얼마나 ‘인문학’을 통해 성경의 핵심을 잘 전달했는지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첫째, 필자는 ‘인문학’을 좋아하지만 신앙서적에서 ‘인문학’을 만나는 것은 여전히 낯설다. 저자가 인용한 여러 시인과 저자의 책들, 영화나 소설, 드라마 내용이(유발 하라리, 도종환, 리처드 도킨스, 밀양 등) 친숙하면서도 주기도의 깊은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주기도와 연관성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이것은 저자의 문제가 아니라 독자인 필자의 독특한(?) 취향 문제다. 필자는 존 맥아더, 싱클레어 피거슨, 존 파이퍼, 마이클 리브스, 조엘 비키 등 성경 본문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고 그 의미를 풍성하게 헤아릴 수 있도록 집중하여 설명하는 저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인문학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대표적 저자는 팀 켈러와 존 스토트인데 아주 간결하게 필요한 때만 적절하게 사용하는데도 필자는 가끔 길을 잃는다.

둘째, 하지만 저자인 정진호 목사는 절대 인문학을 인본주의를 심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문학의 한계를 계속 고발하면서 주기도에 담긴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인문학보다 월등하고 초월적임을 명백히 보인다.

주기도와 연관된 성경 본문을 여기저기 인용하며 성경이 성경을 입증하도록 돕는다.

또한 저자는 ‘신학’을 풍성히 담으려 애썼다.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부터 아더 핑크,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벨코프, 존 웨슬리 등 다양한 시대의 신학자를 인용하여 주기도에 관한 통찰력 있는 해설을 제공한다.

아마 많은 독자는 저자가 적절히 활용한 ‘인문학’을 통해 유익을 얻을 것이다. 주기도가 단지 외곡수적인 성경 학구파에게만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와 사상 속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란 것을 체험하게 해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세상에 귀 기울이는 하나의 방안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대충 알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더욱 친숙한 문학을 통해 성경을 만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아덴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 중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도 있었고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배우기 좋아하는 종교심 많은 이들도 있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항상 성경에 뿌리박힌 ‘신학’에 기초했고 아덴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히 이곳에선 ‘인문학’을 사용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행 17:28)”.

그들이 잘 알고 있던 시가 바울이 선포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이란 성경의 가르침으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한 것이다.

‘인문학’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훌륭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독서 목록에 인문학을 추가하는 것이다.

반면 필자가 인문학을 ‘인문학’으로 순수하게 읽고 성경의 눈으로 비판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반대로 인문학의 눈으로 성경을 탐구하는 것을 낯설어하는 이유는 바울이 회당이나 새로 개척된 초대교회에서 인문학을 통해 성경을 가르쳤는지 의문이 들

기 때문이다.

가장 성경적인 것을 가장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주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것이 스토트가 강조한 이중 귀 기울임에 해당하는 내용임이 틀림없지만, 가장 성경적인 것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세상의 문학과 사상이 반드시 요구되는가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것이다.

필자는 성경의 문화와 역사, 가르침으로 먼저 가서 충분히 배우고 나서야, 지금의 문화와 사상을 볼 수 있는 바른 시각이 생긴다고 믿는다. 그래서 본문을 연구하는 중에 지금의 문화와 사상이 들어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시각과 취향 차이가 존재하지만, 종합적으로 저자는 주기도를 읽고 배우게 하는 흥미로운 도구인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이 도구 상자는 ‘인문학’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지도 딱딱한 성경 해설과 ‘신학’만 가득 차 있지도 않다. 신학과 인문학이 너저분하게 흐트러져 있지 않고, 주기도를 설명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활용된다.

저자가 활용한 시, 소설, 신학자와 철학자의 글과 기독교 역사 등은 다양한 관심사와 정서를 가진 독자를 끌어들여 저자가 궁극적으로 탐구하기 원하는 주기도로 이끌어 갈 것이다.

지금까지 주기도 관련 책과 가르침이 참 많이 쏟아져 나왔지만,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주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한다. 그 절실한 간구를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통해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저자가 머리말에 말한 바람처럼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좀 다르게 기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다면, 그리고 그 다음을 시도해 가는 용기를 낸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5쪽)”이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9월, 작가들의 말말말①]

◆도널드 휘트니(저자), 우수명(옮긴이) - 영적 건강 처방전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은 정교도들의 소위 ‘하나님의 자신 숨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그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도록 하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분의 부재에 대한 경험은 우리를 메마



게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모습을 감추셨다는 생각은 단지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단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묵상을 함께 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한다면 마치 물이 수도관을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 마음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라고 조지 무러는 경고했습니다.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 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

<우영우> 속 매력적 자폐인 주인공 박은빈 캐릭터, 현실성 아쉬운 이유

자폐 장애인 위한 관심과 사랑 원동력은 기독교 신앙 세상 여론, 기독교인 봉사와 헌신 높게 평가하면서도 근본 바탕인 신앙은 정작 미신처럼 치부하며 부정해 이들 위한 기독교인 헌신, 죽음 이후 영혼 보상 추구

◆자폐성 장애와 다윈주의: 자폐성 장애를 낭만스럽게 치장하는 서번트 증후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가 전국 17.5%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보이며 지난 3개월 간의 여정을 마쳤다. 케이블 방송사에서 이 정도 시청률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 드라마는 근래 들어 우리 사회에 점차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자폐성 장애와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인구는 3만 1천 명에 달한다. 이는 2010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는 자폐성 장애가 선천적 원인을 갖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조기 진단이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크다. 여기에 더해 고질적인 만혼과 고령 출산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아 비율을 높이는 중요 원인이 된다.

현재 자폐성 장애는 주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한다. 그러나 핵심 증상을 호전시키는 약물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의사에 따라 견해는 다르지만, 약물치료가 장기화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실상 자폐성 장애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은 심리치료와 꾸준한 소통 노력, 그리고 특성화된 교육이다. 쉽게 말해 자폐로 인한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도록 치료할 길은 없고, 오로지 주어진 지적 능력의 한계 안에서 사회와 인간관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뜻이다.

결국 자폐성 장애는 그에 대응하기 위한 인문학적 고찰과 시스템 구축 노력이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된다. <레인 맨>, <굿 닥터>, <우영우>가 제시하는 인문학적 해답은 다

원주의적 인간 이해에 따른 소수자,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채용되는 서번트 증후군(자폐성 장애를 앓는 이 중 극소수의 환자에게 나타나는 천재적 재능)이라는 소재는 약자와 소수자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사실을 내세우기에 적합한 매력적인 요인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자폐성 장애를 가진 이들 가운데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인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체 자폐성 장애인 중 100만분의 1의 확률로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이들이 존재한다.

이 극소수에 불과한 이들이 언론의 조명을 받고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곤 하지만, 실상 이들은 일반적인 자폐성 장애인을 대표하지 못한다. 자폐성 장애인들의 현실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고난스럽다.

이처럼 정치적 올바름 사상과 다윈주의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자폐성 장애인들을 동등한 인격으로 그려내려는 노력이 거의 비현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기독교의 자폐성 장애인 돌봄에 대한 목회신학과 사회복지 관점의 고찰은 지극히 고통스럽고 힘든 그들의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폐성 장애와 기독교적 헌신: 자폐성 장애인들의 고난스러운 현실을 직시하는 기독교적 돌봄

최근 들어 정치적 올바름과 다윈주의 인간 이해가 학계에서도 주류로 등극하면서, 일반 사회복지나 인문학 측면에서 자폐성 장애를 주제로 다루는 연구가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 분야의 연구는 거의 기독교 목회신학 연구자들의 독무대나 다름 없었다. 이는 그만큼 교회 내에 자폐성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을 사역의 한 소명으로 받



드라마 <우영우>에서 서번트 증후군을 자폐성 장애인의 현실을 낭만스럽게 포장하는 주된 소재로 채택된다.

아들이는 이들이 흔히 앓게 존재한다는 증거가 된다.

원래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은, 다윈주의 인간 이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격적 평등에 원리적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가지 더 필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남을 위해 자기 인생과 힘을 소비할 줄 아는 헌신의 의지이다.

이 부분에서 기독교계는 자주 놀라운 성과를 보여온 바 있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 받은 교역자들과 신자들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은 교회가 사회를 향해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표지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헌신에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첫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되었고 불들린 바 되었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간직한 자는 자신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만큼 남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는다.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한 중요한 방편이라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진 이에게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 대한 돌봄은 더 이상 인간적 책무가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진 책임이 된다.

세속화와 무종교 세대가 일반화된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더 이상 대중에게 큰 감명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봉사와 헌신의 행실 자체는 높게 평가하지만, 그 원동력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미신 수준으로 치부하는 것이 오늘날 종교 부정의 현실이 보여주는 실상이다.

그러나 이렇게 미신 취급을 받는 신앙 기반의 장애인 돌봄이 다윈주의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삼는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봉사와 사랑의 손길보다는 순전하고 숭고하다.

왜냐하면 순전한 인간적 신념에 바탕을 둔 타인에 대한 봉사는 그 실상에 대한 과

대포장과 낭만화, 그리고 그에 따른 유무형의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한순간 불타올랐다가 사라지는 감정의 발로에 그치고 말기 때문이다.

<우영우>가 유독 사랑스러운 자폐성 장애인을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정도로 매력적인 캐릭터를 제시해 주지 않으면, 대중은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 아예 관심조차 가지려 하지 않는다. 특히 그들의 고난스러운 삶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경우 더욱 그로부터 거리를 두려 한다.

자폐성 장애인을 비롯한 각종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기독교적 헌신 역시 특정한 보상을 바라고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단 그 보상은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혼에 내려지는 보상이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려는 의지와 소명을 외면치 않는 신앙 양심을 붙들다면 약자에 대한 헌신의 힘은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병자, 장애인, 소수자에 대한 기독교적 돌봄과 헌신은 드라마 <굿닥터>나 <우영우>처럼 따로 그 이미지를 낭만스럽게 꾸밀 필요가 없다. 그 현실이 처절하면 할수록, 영혼에 더 큰 복으로 다가온다는 믿음의 힘 때문이다.

오지에 파송되기를 자처하는 선교사들, 빈민과 장애인들에게 삶의 위로와 신앙 교육의 기회를 선사하려는 도시의 교역자들, 그 외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어려움을 감내하며 타인의 신앙과 복지를 위해 힘쓰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와 같은 믿음의 힘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이 점은 다윈주의적 돌봄과 헌신을 추구하는 이들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참된 기독교 신앙인의 돌봄과 헌신이 갖는 고유한 강점이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자폐성 장애의 엄밀한 현실보다는 훈훈한 낭만에 기댄 장애인 인식을 선보이는 드라마 <우영우>.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혜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Amount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보험자 Rate 월 보험료/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이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3시간 사고당영성 연마유지 영연속영성 영연속영성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업무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참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2022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미국동부지역 CONFERENCE

엔데믹(endemic)시대의 교회와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한
목회전략 Conference에 초대합니다.

- **대 상** 목회자, 사모, 주일학교 사역자
- **등록비** 무료 (점심식사 제공)
- **등록 방법 및 문의**

인터넷 등록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 danielprayer.org
'미국Conference' 신청페이지 작성

등록 및 문의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회
 ✉ 21danielprayer@gmail.com
 ☎ 02-6413-4922



김은호 목사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
(오륜교회 담임)



주경훈 목사
꿈이있는미래 소장



주성하 목사
다니엘기도회 운영팀장

| 1차

New Jersey Conference

일 시 2022.9.13 (화) 10:00~15:00

장 소 필그림선교교회(양춘길 담임목사) 80 Commerce Way Hackensack, NJ 07601 ☎ 201-461-1225

| 2차

Washington Conference

일 시 2022.9.19 (월) 10:00~15:00

장 소 와싱턴중앙장로교회(류응렬 담임목사) 15451 Lee Hwy, Centreville, VA 20121 ☎ 703-815-1200

○ 사전등록 혜택 ~ 8월 31일 까지 ○

- ① 강사 저서 증정
- ② OBOX(기독교 콘텐츠 OTT 서비스 전용셋탑)
- ③ 꿈미패키지(샘플북 & 콘텐츠usb)
- ④ 한국 방문시 오륜교회 사역탐방 기회 제공
- ⑤ '미국 동부 사랑의헌금 프로젝트' 기회 제공

- 1) 대상 : · 뉴욕, 뉴저지, 워싱턴 지역의 한인교회
 · 재정 성도 30명 이하의 교회
 · 교회 렌트 비용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
 · conference 사전 등록 및 다니엘기도회 참여를 희망하는 교회
- 2) 접수 방법 및 기간 :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8월 31일까지 접수
- 3) 지원대상자 선정 : 심사 후 최종 대상자 선정하여 conference 당일 사랑의헌금 지급



등록 QR 코드